



**예거 르쿨트르, 호모 파베르에서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 공개**

**그랑 메종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탁월한 노하우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

-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은 예거 르쿨트르가 그랑 퓨 에나멜로 제작한 사상 최대의 작품으로, 에나멜 작업에만 200 시간이 소요됩니다.
- 봄과 재생의 보편적인 상징인 체리 블라썸 장식은 호모 파베르에서 귀빈으로 맞이하는 12 명의 일본 인간 국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는 레귤레이터 스타일의 디스플레이와 천문학적으로 하루의 오차가 발생하기까지 3,821 년이 걸리는 문페이즈 인디케이터가 특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놀라운 예술 작품인 에트모스 클락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베네치아의 호모 파베르(Homo Faber)에서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 (Régulateur ‘Cherry Blossom’)을 공개합니다.

그랑 메종 메티에 라르 워크숍의 유서 깊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진귀한 오브제 제작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장인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호모 파베르는 유럽 전역의 뛰어난 장인의 노하우를 기리며 15 개 전시를 선보입니다. 올해 호모 파베르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장인 정신의 공유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12 명의 일본 인간 국보를 귀빈으로 맞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랑 메종은 새로운 애트모스 레귤레이터를 통해 *사쿠라(sakura)* 또는 체리 블라썸을 그려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은 재생과 덧없는 삶, 시간 그 자체를 일깨워주며 봄의 보편적인 은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 테마에 따른 애트모스 무브먼트는, 가장 유명하며 가장 사랑받는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인 문페이스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고귀한 존재감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애트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은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2개의 드라마틱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 패널 사이에 자리한 투명 글래스 캐비닛을 통해 클락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에나멜로 수공 채색한 벚꽃 가지가 다이얼 링을 가로지르며 한쪽에서 반대쪽 패널까지 매끄럽게 뻗어 있습니다. 꽃잎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듯 그 주위로 훑날립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200 시간에 달하는 마스터 장인들의 헌신적인 작업이 필요한 에나멜 작품으로, 그랑 메종에서 수행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계 케이스와 다이얼의 에나멜링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에나멜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의 엄청난 규모는 완전히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아틀리에 장인들은 에나멜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비 연구, 아이디어 교환, 실험, 시험 제작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소재와 기술을 여러 번 검토했으며 이러한 큰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마를 지정했습니다.

196mm x 105.2mm 크기의 패널에서는 시계 에나멜링에 사용되는 골드보다 구리가 더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표면의 경우, 에나멜 장인은 원하는 깊이와 균일한 블랙톤을 얻기 위해 가루 안료를 동판에 체로 거르는 ‘건식 에나멜링’ 기술(케이크 위에 슈가파우더를 뿌리는 것과 유사)을 완성하여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층이 마무리되면, 패널을 가열 및 냉각하여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포, 균열 또는 먼지 티끌이 생길 위험이 있어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개의 다이얼 링의 경우, 연질 금속으로 그랑 퓨 에나멜의 고온 가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실버가 가장 적합한 소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물체의 뒷면에 ‘카운터-에나멜(*contre-email*)’을



준비하지만, 이 경우 다이얼이 뒤에서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링은 속을 파내 에나멜을 입힐  
흠을 만들어주었고, 패널은 여러 번 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배경이 완벽하게 완성되면 미니어처 장인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모순에  
가까운 예술적 감각과 탁월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블랙 에나멜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가열이 필요한  
일련의 층으로 이루어지며 다시 가열할 때마다 이전에 진행된 모든 작업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비범한 수준의 기술력과 무수한 경험을 거친 숙련된 노하우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1928 년에 발명된 애틀모스는 기온의 미세한 변화에 의해 구동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장착된 탁월한  
타임피스이자 *예술 작품*입니다. 매뉴팩처는 1970 년대부터 이 천재적인 메커니즘을 재해석하기 위해  
선도적인 디자이너와 예술 공예의 지지자들을 영입했습니다. 명확한 예술적 의도를 담아 새롭게  
재해석된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 은 뛰어난 예술성이 돋보이는 균형 잡힌 비율과 시각적  
조화로 클락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합니다.

이 특별한 작품의 무브먼트는 그랑 메종에서 전적으로 고안 및 생산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모델로,  
레귤레이터 디스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원 안의 원으로 디자인된 구조에 자리한 라지 미닛 링과 스몰 아워  
링은 월간 캘린더와 문페이즈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에서 천천히 진동하는 고리 모양  
밸런스 형태와 조화를 이룹니다.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는 천문학적 현실에서 하루의 오차가  
발생하기까지 3,821 년이 걸릴 정도로 정확합니다.

독특한 예술 작품인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 은 그랑 메종의 탁월한 노하우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뉴팩처 내에서 이러한 희귀 기술을 보존 및 확장하며 인간의 독창성을  
기리기 위한 예거 르쿨트르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 상세 정보

###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체리블라썸’

전체 사이즈: 468mm x 183mm x 255mm



**패널 사이즈:** 196mm x 105.2mm

**칼리버:** 반영구적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기능:** 시와 분 레귤레이터 유형 디스플레이, 24시 인디케이터, 월 인디케이터, 퍼페추얼 문페이스 인디케이터(3,861년마다 하루 오차)

**다이얼:** 그랑 퓨 에나멜

**패널:** 그랑 퓨 에나멜

**캐비닛:** 글래스

**제품 번호:** Q5604302

*호모 파베르 이벤트는 2022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베네치아 산 조르조 마조레 섬의 폰다치오네 조르조 치니에서 공개됩니다. 정보 및 티켓 구매는 [homofaber.com](https://www.homofab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에트모스 소개

1928년에 탄생한 에트모스는 다른 시계와는 차원이 클락입니다. 스위스 엔지니어 장-레옹 휘테(Jean-Léon Reutter)가 발명한 모델로,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태엽 감기 없이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에트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에 의해 구동됩니다.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들의 작동 시간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1936년에 에트모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이후,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시계의 아름다움을 향상한 이후로, 에트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트모스 I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래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된 한편,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에트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

#### 호모 파베르 소개

창의성과 공예술을 위한 미켈란젤로 재단(Michelangelo Foundation for Creativity and Craftsmanship)이 주최하는 호모 파베르 이벤트는 장인의 재능을 옹호하는 국제 전시로, 라이브 시연, 몰입형 디지털 경험, 독창적인 수공예 작품 전시를 통해 매우 다채로운 재료와 숙련된 기술을 선보입니다. 2022 에디션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드는 공예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예와 예술, 디자인 세계와의 연결을 경험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선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기획한 15 개 전시는 베네치아 산 조르조 마조레 섬에 있는 폰다치오네 조르조 치니의 웅장한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영 앰배서더 프로그램(Young Ambassadors Programme) 학생들이 제공하는 가이드 투어가 가능합니다. 전시회와 함께 시타(Città)의 호모 파베르는 방문객이 베네치아 전역에서 장인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여행 일정을 제공합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